

## 조선족, 화교, 한족 그리고 한국 아동의 기질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연구\*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mperament Among Korean-Chinese,  
Chinese-Korean, Chinese and Korean Children\*

박민정(Min-Jung Park)<sup>1)</sup>

박혜원(Choi, Hyewon Park)<sup>2)</sup>

### ABSTRACT

The short form of the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Revised (Ellis & Rothbart, 1999) was translated into Korean for Korean (N=367) and Korean-Chinese (N=258) children and into Chinese for Chinese-Korean (N=232) and Chinese (N=211) children. This 43 item scale of self-ratings was administered to 4th graders by home-room teachers in China and in Korea. Korean-Chinese children rated themselves higher on affiliation, depression, fear, pleasure - and perceptual - sensitivity and shyness than other groups. Chinese-Korean children were higher on affiliation, aggression and frustration, Chinese children were higher on activation control and Korean children rated themselves lowest on all subscales. Korean girls were higher than boys on activation control and affiliation. Korean boys were higher than girls on pleasure sensitivity. Chinese boys were higher than girls on aggression.

**Key Words** : 조선족(Korean-Chinese), 화교(Chinese-Korean), 한족(Chinese), 한민족(Korean), 기질(temperament).

### I. 서 론

“단일민족국가”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대한민

국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결혼 이주자의 증가와 외국 이주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 등의 현상으로 불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sup>1)</sup>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sup>2)</sup>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Choi, Hyewon Park, Dept.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E-Mail : hyewonpc@mail.ulsan.ac.kr

때, 이 ‘단일민족국가’는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주 외국인은 국제결혼을 통해 정착한 사람들, 산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 이주해 온 화교 등으로 대변될 수 있겠다. 현재까지는 이들의 수가 전체 인구수 대비 미미한 존재이지만, 점차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출산율이 일반 한국가정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차후의 한국사회에서 이들과 이들의 자녀가 파플 파워를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보다 빨리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세계화와 국제화를 경험하게 되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지만, 이주자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최근 서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인종차별이나 이주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소요 사태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차후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발전과 번영 그리고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이들 이주 집단들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특히 그들의 자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 이주 역사가 100년이 넘는 화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해가 없는 상황이며, 더구나 10년 남짓한 타 이주자의 아동특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더욱 드물어 이들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인 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인 것이다. 이들 이주자들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 본 연구자들은 중국의 조선족 아동과 한국의 화교 아동에 집중하였다.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아동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화교 아동에 대한 연구는 이민자

들이 거주지의 여러 정책에 따라 어떠한 변화 및 적응을 경험하는 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에게 차후 다문화사회인 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조선족의 이주역사는 1860년대 당시 청나라의 황무지 개간을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일제시대의 강제징용이나 혹은 독립운동을 위한 망명 등의 형태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때까지 이어졌다(임계순, 2003). 이들은 현재 중국 각지에 약 203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내 55개의 소수민족 중 13번째로 큰 소수집단이다. 조선족은 이주 초기부터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민족집단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현재까지도 96%가량의 조선족이 동북 3성이라고 하는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조선어를 사용하고, 조선족 학교에 다니고 한국의 민족문화를 상당히 보존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 인구의 약 43%가 거주하고 있는 연변 지역은 조선족 자치구로서, 조선어가 제 1언어로 사용되고 있고, 조선족 학교도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등 중국 내에서 한국적 모습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 조선족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주로 조선어를 사용하며 자녀들을 조선족 학교에 보내면서 민족 언어와 민족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살아왔으나, 최근 10년 동안 중국 전체에 강타한 개혁과 개방의 영향이 이곳 연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중국의 개방이후 많은 외국문화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의 사람들과의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곳의 조선족 다수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고 있다. 개방 초기의 이곳 조선족들은 한국이 자신의 모국이라는 정체감이 강하였으나, 지난 10년간의 교류 이후 이러한 사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후 한국과 국교가 단절되었던 까닭에 중국 조선족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1980년대 중국민항기 사건과 올림픽의 개최 등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상이 중국 조선족들에게 알려져 한국에 대한 환상과 동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국교 수립 후 이루어진 대한민국과의 접촉은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까닭인지 실망도 많이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모국이라고 찾아갔던 한국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이야기와 중국으로 사업차 또는 관광차 찾아오는 일부 한국민들의 추태 등으로 과거 혈연국가에 대한 환상은 거의 사라지고 특히,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위상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조선족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중국 주류 문화에 동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조선족 학교가 학생 수의 감소로 문을 닫고 있고 민족 언어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과거 10년 동안 조선족, 특히 아동의 생활에는 과거 세대와는 다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향후 10년 이후의 한국 거주 외국인 인구비율에 변화가 있으리라 예측되긴 하지만, 화교는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소수민족으로 볼 수 있다. 화교의 한국정착은 그 시작부터 다른 나라의 화교들과 차이가 있다. 세계 각지의 화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매우 하층민들이라 할 수 있는 계층이 생존을 위해 이주한 것에 반해, 한국에 이주한 1세대 화교는

당시 청나라의 종주권 강화라는 목적으로 청나라 정부의 비호아래 이루어져 타 지역의 화교들과 비교해 자부심에서 차이가 난다. 이들은 이민 초기에 인천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였고, 중국 정부의 관리를 받으며 꾸준히 유입되었다. 이후 중국의 공산화와 함께 이들은 다시 대만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는 데, 대만정부는 한국의 화교를 자국의 해외국민으로 편입시키고 철저한 반공교육을 실시하며 결속력을 높여 현재까지 많은 수의 화교들이 대만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2년 한국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한 이후 한국과 중국 및 대만과의 관계 변화로 인해 한국의 화교는 대한민국으로의 귀화, 중국국적의 취득, 그리고 비수교국인 대만의 난민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이재광, 2004). 일반적으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정착한 화교들은 대부분 거주국가에 동화되어 현지국민이 된 반면, 한국의 화교는 한국에 거주한지가 1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 이재광(2004)은 한국의 화교가 중국인과 한국인의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독특한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한국 화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상당부분 한국민들의 단일민족국가 사상에 근거한 반동화정책 혹은 외국인 차별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화교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었다가 최근 몇 가지 국내외 상황과 맞물리면서 국내의 화교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장수현, 2001). 근래 화교가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화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IMF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위기의 돌파구로 해외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지역의 유동적인 화교자본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와 함께 해외 화교들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화교가 갖는 중요성이 여러 지자체에 의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지방 도시들은 중국의 거대 인구를 끌어들이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 필요성을 주목했고, 화교집단 거주지에 대한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장수현, 2001). 이렇듯 한국화교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학문적 관심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대개 화교의 경제적 위상에 대한 연구 등에 집약되어 있을 뿐, 화교아동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하에서 한국의 화교 또한 중국의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화교학교를 통해 자국의 문화를 전승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조선족 학교가 중국 당국의 지시로 성장한데 반해, 한국의 화교학교는 한국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화교학교 또한 중국의 조선족 학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즉, 학생 수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화교학교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의 화교는 일제의 패망과 중국의 공산화를 겪으면서 여력이 되는 일부는 미국이나 서구의 다른 나라로 재이민을 가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에 남아있는 일부는 자신들의 처지에 더욱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화교학교는 전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 학교

에 비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국학교로 진학하는 수도 증가하여 화교 학교의 폐쇄는 계속 지속되리라 예측된다(우심화, 1999). 이러한 결과로 한국 화교의 아동들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문화에 더욱 친숙해지고, 동화되어 가는 중인데, 한국의 정책이 그들을 외국인이라 선을 긋고 외면하는 실정이라 볼 수 있다.

화교와 화교아동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 자녀의 한국 적응에 대한 이해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다수의 외국인들은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동양적 무화를 소유한 동남아시아계로 한국 내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자 할 가능성이 큰 집단들이다. 이들 집단에게도 화교에게 실시하였던 이민자 정책을 실시한다면, 한국은 멀지 않은 장래에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서구 사회의 정책은 주류사회에 대한 동화정책으로 볼 수 있고, 한국은 여기에 더 나아가 철저한 차별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소수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가의 소수민족 정책은 그 제도아래에서 성장 발달하는 소수민족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국에 거주하면서 민족적 전통을 전승하고 있는 두 집단인 중국 조선족과 한국의 화교 아동이 그들의 혈연집단이면서 이웃인 한족과 한국 아동과 그 기질적 측면에서 어떠한 측면이 유사하고 또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발달은 발달의 주체인 아동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

해 이루어진다. 기질은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Thomas, Chess, & Birch, 1968), 일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나 아동 발달에 대한 최근 연구는 아동이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발달하는 데,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기질 또한 동일한 과정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원영미·박혜원·이귀옥, 2004; Shaffer, 2000; Thomas & Chess, 1980). Bronfenbrenner (1979)도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아동에 대한 비교문화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 주제가 되는 분야가 바로 기질인 데, 아동의 다른 특성보다 기질은 선천적인 특성으로 변화가 거의 없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천적인 특성이 환경의 영향에 의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 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 또래, 지역사회, 그리고 아동이 속해있는 문화 등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특정한 기질과 관련성이 있다(문혁준, 2000; 천희영, 1993; 최연희, 2001; Scott, 2003; Simonds & Simonds, 1982).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와 아동이 속해있는 특정한 문화집단의 가치를 반영하고, 동일한 문화권내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행동을 하도록 자녀를 양육한다. 그 결과 아동은 대체로 그 문화권에서 선호되는 특성이 우세하게 된다(Kohnstamm, 1989). 예를 들면, 미국 부모는 외적사건으로 영아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달래기를 시도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자극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일본 부모들은 아동을 혼드는 등의 직접적인 방식으로

아동을 달래는 시도를 한다(Caudill & Frost, 1972). 이처럼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양육행동은 다시 아동의 기질 발달에 영향을 주리라 기대된다.

미국 아동과 중국 아동의 기질 차이를 연구한 Ahadi, Rothbart 그리고 Ye(1993)에 따르면, 미국 아동이 중국 아동보다 긍정적인 측면의 기질 특성이 더 높고, 부정적인 측면의 기질 특성이 더 낮다고 보고한다. 일본 아동의 경우도 미국 아동보다 더 위축되고, 긍정적인 정서를 덜 표현하고 규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Windle, Iwawaki & Lerner, 1988) 이러한 문화집단간의 차이는 다른 국가가 아닌 동일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있는 다른 민족적 집단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계 미국 아동들은 유럽계 미국 아동들보다 더 내성적인 것으로 평가된다(Kagan, Kearsley & Zelazo, 1978).

그러나 기질과 아동이 속해있는 개별 문화집단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이러한 비교문화연구들은 대체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간주되는 “서양”과 집단주의 성향으로 간주되는 “동양” 문화에 대한 비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Abe & Izard, 1999; Ahadi 등, 1993). 최근 Russell, Hart, Robinson & Olsen (2003)은 미국과 호주 아동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에서, 동일한 서양문화권이요 사상적인 체계도 유사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도 기질에서의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Leung, Lau & Lam(1998), Bornstein 등(1998)의 연구에서도 아동 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사한 문화권내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한다. 마찬가지로 최근 연변 조선족 유아와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원영미 등(2004)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에서 기질의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비록 동일한 유교문화권이라는 문화적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아동과 화교 아동, 공산주의 체제하의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족 아동과 조선족 아동 간에도 그 기질적 차이가 존재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Russel 등(2003)과 Gartstein, Slobodskaya & Kinsht(2003)의 연구에서는 남녀의 기질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분노와 좌절, 그리고 수줍음과 같은 기질적 특성들은 동일한 문화권내에서도 사회적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남아와 여아의 경우에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천희영, 1993). 실제로 부모는 자녀 양육시에 그 사회에서 적합하고 우세한 성역할에 적합하게 남녀에 따라 양육방법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리라 기대된다. 현재 중국의 경우는 남녀 모두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고, 실제로 기혼 여성의 다수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아직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집단간의 기질에서의 남녀 차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아동과 함께 동일한 유교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념과 사상이 다른 사회 환경과 제도 속에 살고 있는 한족 아동과 동일한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선족 아동, 그리고 민족과 문화가 다르지만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화교 아동의 기질을 국가, 민족, 성차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선천적인 개인차라고 인정되고 있던 기질이 환경에 의해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 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조선족, 화교, 한족, 그리고 한국 아동 간에 기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조선족, 화교, 한족, 그리고 한국)의 성에 따른 기질의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인 연길시 소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258명(남 123명, 여 135명), 연길시 한족 소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211명(남 106명, 여 105명), 한국 서울시에 위치한 화교 소학교 아동 232명(남 140명, 여 92명), 그리고 한국의 서울과 울산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367명(남 188명, 여 179명)이다. 부모의 연령은 네 집단 모두 35-45세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화교 아동 부모의 연령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조선족과 한족, 그리고 한국 아동의 부모는 고졸이 가장 많은 반면, 화교 아동의 부모는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조선족과 한족 아동의 모의 경우는 대부분이 직업을 가진 반면, 한국 아동의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교 아동의 경우, 부모의 연령과 학력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을 거부하여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대한 정보가 생략되었다.

## 2. 연구도구

### 1) 기질검사도구

아동의 기질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Ellis & Rothbart(1999)의 아동용 기질 검사지 간편형(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Scale-Revised, Short form : EATQ-R 간편형)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EATQ-R 간편형은 만 9세에서 15세의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2개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6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특정행동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지를 아동이 “전혀 아님(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그 기질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진(Cronbach  $\alpha$ , .40 이하) 주의집중(attention), 억제(inhibition control), 모험심(high intensity pleasure/surgency)의 3개 하위요인을 제외한 9개 요인 43문항을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43개 문항은 각기 활동통

제(activation control), 친화(affiliation), 공격성(aggression), 우울(depressive mood), 불안(fear), 좌절(frustration), 기쁨민감성(pleasure sensitivity), 지각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 수줍음(shyness)의 9개 차원으로 구성되고 각 요인별로 3-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 요인별 척도의 내용과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중국 조선족 아동과 중국 한족 아동의 자료는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중국 길림성 민족교육국의 도움을 얻어 길림성 연길시의 위치한 조선족 및 한족 소학교 각각 1개교에서 수집되었다. 한국에서 우편으로 설문지를 미리 배송한 후, 담임교사의 감독아래 설문지를 작성하게하고 그 이후에 연구자가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각각 300부씩 배부하였으나, 조선족 소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한족 아동의 설문지와 한족 소학교에 재학 중인 조선족 아동의 설문지를 제외하였고, 또한 위 기

<표 1> 기질의 하위요인별 정의와 신뢰도

기 질	기질의 하위요인별 정의	문항	신뢰도
활동통제	활동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4	.54
친 화	타인에 대해 동정적이고 친밀하려는 욕구	5	.54
공 격 성	사물과 사람에 대한 신체적 폭력, 언어적 공격 및 반발심	6	.71
우 울	즐거움과 흥미를 상실한 불쾌하고 시무룩한 감정	5	.58
불 안	미리 걱정하는 것과 관련된 불쾌한 감정	6	.54
좌 절	진행중인 일을 방해받았을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	7	.70
기쁨에민성	강도, 복잡성, 새로움 등이 낮은 행동이나 자극에 즐거워하는 정도	5	.58
지각에민성	약하고 낮은 강도의 환경적 자극을 지각하는 정도	3	.55
수 줍 음	새롭고 도전적인 것에 대한 행동억제	3	.45
전 체		43	.80

간 동안의 단기 종단적 연구에 계속 참여한 조선족 258명과 한족 21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국 아동의 자료는 동일한 기간 동안 서울과 울산의 초등학교 각각 2개교에서 수집되었고, 총 500부를 배포하여 계속 연구에 참여한 367명의 아동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편, 화교 아동의 자료는 2005년 6월 서울시 화교 소학교 한 곳에서 수집하였는데, 총 25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232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PC+VERS. 12를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조선족, 화교, 한족, 그리고 한국의 아동의 기질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와 사후검증으로 Scheffe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집단의 기질 평균 점수가 국가별로 평가의 편향성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기에 각 집단의 평균에서 각 문항의 기질의 평정 점수를 뺀 수정평정점수를 사용하여 집단을 비교하였다. 남녀의 기질 차이 비교를 위해서는  $t$  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결 과

#### 1. 조선족, 화교, 한족, 그리고 한국 아동의 기질

<표 2>는 기질하위 영역별로 조선족, 화교, 한족 그리고 한국 아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질의 하위 9개 요인 모두에서 네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활동통제는 한족 아동이 가장 높고 조선족, 화교 그리고 한국 아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F=55.44, p<.001$ ). 친화는 조선족과 화교 아동은

<표 2> 기질 요인별 국가/민족의 차이

요인	집단	M	SD	F	Scheffe
활동 통제	조선족	3.42	.84	55.44***	A
	화교	3.33	.74		A
	한족	4.18	.76		B
	한국	3.22	.77		A
친화	조선족	3.54	.79	33.70***	B
	화교	3.37	.74		B
	한족	3.02	.86		A
	한국	2.84	.70		A
공격성	조선족	2.71	.91	30.79	C
	화교	2.76	.87		C
	한족	1.94	.84		A
	한국	2.43	.68		B
우울	조선족	3.09	.78	37.16***	C
	화교	2.92	.74		C
	한족	2.17	.95		A
	한국	2.61	.78		B
불안	조선족	3.50	.75	10.36***	B
	화교	3.18	.65		A
	한족	3.06	.97		A
	한국	3.09	.78		A
좌절	조선족	3.22	.84	23.00***	B
	화교	3.53	.57		C
	한족	3.01	.96		A
	한국	2.97	.83		A
기쁨 민감성	조선족	3.60	.85	5.53***	B
	화교	3.31	.67		A
	한족	3.59	.97		B
	한국	3.35	.93		B
지각 민감성	조선족	3.33	.86	33.59***	B
	화교	3.21	.97		B
	한족	3.18	1.02		B
	한국	2.51	.89		A
수줍음	조선족	3.16	1.00	11.50***	B
	화교	3.06	.94		B
	한족	2.74	.99		A
	한국	2.70	.91		A
전체	조선족	3.30	.50		
	화교	3.17	.42		
	한족	2.96	.58		
	한국	2.86	.41		

\*\*\* $p<.001$



높고 한족과 한국 아동의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33.70, p<.001$ ). 공격성은 다른 기질적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조선족과 화교 아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아동이 그 다음, 그리고 한족 아동은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30.79, p<.001$ ), 우울수준 또한 공격성과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족과 화교 아동이 높고, 한족 아동, 그리고 한국 아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F=37.16, p<.001$ ), 불안은 조선족이 가장 높고, 화교, 한족 및 한국 아동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F=10.36, p<.001$ ). 좌절은 화교 아동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그 다음으로 조선족, 그리고 한족 아동과 한국 아동은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였다( $F=23.00, p<.001$ ). 기쁨민감성은 조선족과 한족 아동이 높고 한국과 화교 아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5.53, p<.001$ ). 지각 민감성은 조선족과 화교 그리고 한족 아동이 높고 한국 아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33.59, p<.001$ ). 그리고 수줍음에서는 조선족과 화교 아동이 높고 한족과 한국 아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F=11.50, p<.001$ ).

즉, 조선족 아동은 친화, 우울, 불안, 기쁨민감성, 지각민감성, 그리고 수줍음의 6개 요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화교 아동은 공격성과 좌절 요인이 가장 높고, 한족 아동은 활동통제 수준이 가장 높고, 공격성과 우울 및 좌절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동은 집단 비교시 공격성, 우울 그리고 기쁨민감성 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hadi 등(1993)과 Gartstein 등(2003)은 기질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에서 각 국가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질 평정시 전반적인 점수의 기준(anchoring point)이 다르므로 집단별 전체 평균과 개별 기질 문항점수의 차이를 이용할 수 정평정 점수를 사용하여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질 평정 점수의 전체 평균이 조선족 아동의 경우, 3.30, 화교 아동은 3.17, 한족 아동은 2.96, 그리고 한국 아동의 경우는 2.86 으로 집단 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각 집단의 평균에서 각 문

<표 3> 기질요인별 국가/민족간의 차이 수정평정점수의 평균(표준편차) 및 F값

기질 하위요인	조선족	한국화교	중국 한족	한국	F
활동통제	.11(1.00)a	.16(.42)a	1.21(.91)c	.37(.90)b	71.52***
친화	.24(.60)b	.20(.77)ab	.06(.74)ab	-.02(.61)a	4.82**
공격성	-.59(.72)b	-.40(.59)b	-1.02(.81)a	-.43(.63)b	18.63***
우울	-.11(.52)b	-.25(.77)b	-.79(.74)a	-.25(.58)b	16.75***
불안	.20(.50)	.02(.54)	.10(.75)	.17(.59)	3.36*
좌절	-.09(.61)a	.36(.47)b	.05(.64)a	.11(.65)a	10.46***
기쁨 민감성	.30(.66)ab	.14(.55)a	.63(.81)c	.50(.72)bc	11.78***
지각 민감성	.03(.69)b	.22(.79)b	.04(.86)b	-.35(.66)a	14.88***
수줍음	-.14(.69)	-.11(.79)	-.22(.71)	-.16(.73)	.40

\* $p<.05$  \*\* $p<.01$  \*\*\* $p<.001$

항의 기질의 평정점수를 뺀 수정평정점수를 사용하여 네 집단간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수정평정점수로 네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 집단 별로 기질 평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수줍음, 그리고 기쁨민감성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표 2>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불안 영역은 <표 2>에서 조선족, 화교, 한족 그리고 한국 아동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수정점수로 살펴 본 결과 조선족, 한국, 한족 그리고 화교 아동의 순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F=3.36, p<.05$ ). 기쁨민감성의

경우는 한족 아동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국 아동, 조선족 아동 그리고 화교 아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11.78, p<.001$ ). 수줍음은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40, N.S$ ).

<표 4>는 국가와 민족별 기질에서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변 조선족 아동의 경우, 활동통제, 친화, 우울 세 요인에서 남녀 차가 나타났다. 활동통제와 친화는 연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고( $t=-2.39, p<.05; t=-2.59, p<.05$ ) 그리고 우울 수준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34, p<.05$ ). 한국의 화교 아동은 경우의 남녀 학생간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변 한족 아

<표 4> 국가/민족 별 성차에 따른 기질 비교 M(SD)

기 질	중국조선족			한국 화교			중국 한족			한국		
	남	여	t	남	여	t	남	여	t	남	여	t
활동통제	3.26 (.82)	3.56 (.83)	-2.39*	3.31 (.67)	3.35 (.85)	-.41	4.10 (.81)	4.26 (.72)	-1.30	3.17 (.77)	3.28 (.78)	-1.26
친 화	3.37 (.84)	3.70 (.73)	-2.59*	3.34 (.79)	3.40 (.68)	-.54	2.88 (.91)	3.16 (.81)	-1.77	2.84 (.74)	2.85 (.67)	-.06
공격성	2.71 (.93)	2.71 (.90)	.05	2.84 (.90)	2.65 (.81)	1.56	2.17 (.88)	1.71 (.73)	3.07**	2.48 (.71)	2.37 (.65)	1.30
우 울	3.23 (.93)	2.95 (.90)	2.34*	2.86 (.78)	3.00 (.68)	-1.36	2.13 (.84)	2.20 (1.01)	-.48	2.55 (.79)	2.68 (.77)	-1.37
불 안	3.44 (.76)	3.56 (.75)	-.87	3.12 (.65)	3.28 (.64)	-1.74	2.90 (.97)	3.26 (.93)	-2.10*	3.00 (.79)	3.17 (.77)	-1.72
좌 절	3.22 (.82)	3.21 (.88)	.06	3.53 (.60)	3.53 (.54)	.04	3.07 (1.01)	2.96 (.93)	.68	2.95 (.91)	2.99 (.75)	-3.22
기쁨민감	3.50 (.86)	3.67 (.84)	-1.24	3.33 (.71)	3.28 (.62)	.53	3.51 (.99)	3.69 (.98)	-1.04	3.19 (.97)	3.50 (.88)	-2.83**
지각민감	3.32 (.80)	3.34 (.91)	-.15	3.16 (1.02)	3.27 (.90)	-.82	3.25 (1.02)	3.15 (.97)	.58	2.53 (.91)	2.49 (.88)	-.42
수줍음	3.15 (1.03)	3.17 (.98)	-.13	3.15 (.96)	2.92 (.91)	1.85	2.83 (.98)	2.67 (.92)	.89	2.64 (.93)	2.76 (.89)	-1.04

\* $p<.05$  \*\* $p<.01$

동은 공격성과 불안 영역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t=3.07, p<.01$ ), 그리고 불안 수준은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10, p<.05$ ). 그리고 한국 아동의 경우에는 기쁨민감성의 측면에서만 남녀 차가 나타났는데( $t=-2.83, p<.01$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쁨민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한족 초학생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및 한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족과 환경에 따라 아동의 선천적인 특성으로 간주되는 기질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네 집단 아동의 기질에 대한 아동의 자기 평점 점수를 비교한 결과, 연변 조선족 아동은 친화, 우울, 불안, 기쁨민감성, 지각민감성, 그리고 수줍음의 6개 요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화교 아동은 공격성과 좌절 요인이 가장 높고, 한족 아동은 활동통제 수준이 가장 높고, 공격성과 우울 및 좌절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동은 공격성, 우울 그리고 기쁨민감성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활동통제는 한족아동이 가장 높고, 조선족, 화교 아동과 한국 아동 간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한족아동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연변 지역이 한국보다는 서구문화의 영향을 더 적게 받고 동양의 전통적 가치를 더 잘 보존하고 있는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동양 문화권은 동일한 기질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되는데, 동일한 유교 문화권이라도 국가 전체 또는 거주지역의 개방화에 따라 그 기질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통제는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동양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기질 특성 중 하나이다. 서구 문화권의 아동과 중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Ahadi 등(1993)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중국 아동이 서구 아동보다 활동통제 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대상 집단은 모두 기질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여서 이를 긍정적인 특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화는 조선족 아동과 한국의 화교 아동이 한족과 한국 아동의 경우보다 높았다. 이것은 현재 조선족과 화교 아동이 처한 환경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집단 모두 거주하는 지역과 민족에서 차이가 있지만, 민족의 고유한 전통도 학습해야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에도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의 문화에만 익숙해도 되는 한족과 한국 아동보다 친화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긍정적인 속성의 하위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집단 모두 기질의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사교적인 성향의 표출이 억제되는 동양 문화권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음을 시사한다. 친화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조선족과 화교 아동이 수줍음에서도 높게 응답한 것도 이러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공격성은 조선족과 한국 화교 아동이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한국 아동, 그리고 한족은 네 집단 중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공격성에 관한 연구에서(박민정, 2003), 공격적인 아동이 충동성이 높고,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그와 유사한 경향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공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된 한족 아동들은 활동 통제 수준이 매우 높고, 우울과 불안 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과 화교 아동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리고 적응해야 하는 환경의 복잡성 등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가 한족과 한국 아동에 비해 복잡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이것은 아동의 응답에 있어서의 솔직성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실제로 조선족과 화교 아동의 공격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공격성보다 공격성 표현에 대한 차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공격성에 대한 매우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문화권에서는 실제보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면, 억제되었던 부정적 측면이 대두되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과거보다 학원폭력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실제 발생률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인정하는 측면에서의 차이일 수도 있다. 또한 공격성에도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는 바, 모든 공격성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박민정 · 박혜원, 2006). 동일한 중국이지만 북경의 어머니가 다원화된 사회인 홍콩의 어머니보다 공격성에 대한 억압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Lai, Zhang & Wang, 2000), 동일한 한족이지만, 화교 아동이 한족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화교아동이 훨씬 더 자유롭고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울, 불안 그리고 좌절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하위 영역들로서, 조선족 아동과 화교 아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의 생활환경을 볼 때 이해가능한 일로 보인다. 중국 조선족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중국의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는 부모의 다수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의 별거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천희영 · 정계숙 · 옥경희 · 황혜정 · 최성학, 2006). 아직 상황대처기술이 부족하고 가정 밖 심리적 지지체제의 이용능력이 부족한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들이므로 이러한 부모와의 별거는 그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화교 아동은 이 시기에 또래의 중국 한족 및 한국 아동들보다 많은 학습량에 시달리게 된다. 화교 아동은 학교 밖에서는 거의 한국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고 있어 매우 유창하나 화교 학교 내에서는 중국어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화교학교에 입학하면 부족한 중국어 공부부를 위해 저녁 늦게까지 중국어 과외를 하는 등 또래의 한국 및 한족 아동보다 언어공부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우심화, 1999). 특히 화교 아동들이 좌절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아동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이중언어를 사용하면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한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동북3성의 조선족들에 대한 2000년 이후 조선족에 대한 우대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의 화교 아동은 여전히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인 부모를 바라보면서 성취동기가 차츰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교 아동의 경우, 대만으로 대학 진학시 화교학생만을 위한 일종의 T.O.가 존재하고 한국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특례입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량은 많으나 학업 성취동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심양 조선족과 화교, 그리고 한국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을 조사한 이사라와 박혜원(2006)의 연구에서도, 중국 심양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화교 청소년보다 공

정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기쁨 민감성은 조선족과 한족 아동이 높고 한국과 화교 아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서구화에 따른 각종 자극과 환경적 변화가 이러한 즐거움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게 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평정점수로 살펴볼 때는 한국 아동 스스로는 기쁨민감성을 다른 기질적 특성에 비해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스스로가 느끼는 불만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하게 지각민감성 또한 조선족과 한족 및 화교 아동이 높고 한국 아동이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줍음은 조선족과 화교 아동이 높게 나타나고 한족과 한국 아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줍음 또한 활동통제와 마찬가지로 서구 문화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동양문화권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기질특성 중 하나이다. 그러나 활동통제와는 달리 조금 낮게 평정한 것으로 보아 수줍음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친화능력이 높다고 스스로가 평정한 조선족과 화교 집단의 아동들이 수줍음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이 평정한 기질 하위영역에서 불안의 경우, 조선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화교, 한족, 그리고 한국 아동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수정평정점수에 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면 불안은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수줍음 또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질은 학자들마다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불안과 수줍음 두 요인의 경우는 기본적인 속성 중 선천적인 성향이 가장 높은 특성이라는데 동의한다(Buss & Plomin, 1984; Rothbart, 1981). 기질의 여러 하위 요인들 중에서 유독 선천적인 특성이 강한 불안과 수줍음에서 집단 간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족, 화교, 한족 그리고 한국의 아동이 각각 처한 환경이 국가적 차원(중국 vs. 한국)과 문화적 차원(중국 문화 vs. 한문화)에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동양문화권의 영향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족 유아와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기질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원영미 등(2004)의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기질적 유사성이 더 두드러진 반면,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아동이 한족 아동과 한국 아동의 중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선족, 한족 그리고 한국 청소년의 기질에 대한 연구(Park & Choi, 2006)에서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기질은 동일한 민족인 한국의 청소년보다 한족의 청소년들과 그 기질적 유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동일한 아동들에 대한 종단적 연구는 아니지만, 유아들보다 초등학생의 집단에서 조선족과 한국아동의 기질적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선천적인 기질 또한 환경의 영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욱 증명해준다 하겠다. 후속연구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기질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문화집단 간 기질에서의 성차를 비교한 결과, 조선족 아동의 경우, 활동통제와 친화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고,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화교 아동의 경우에는 기질 하위영역 모두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족의 경우에는 불안 수준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 아동의 경우에는 기쁨민감성의 측면에서만 남녀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쁨민감성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영미 등(2004)은 한국과 조선족 유아의 성

별차이를 분석하여, 조선족 유아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의 유아의 경우에는 모든 범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즉 활기에서는 남아의 점수가 높은 반면에, 부정적 정서와 주의통제에서는 여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남아는 여아에 비해 활기차며,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표출하는 편이며, 주의통제능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학교 이상에서는 남녀 차이가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아동이나 한국 아동보다는 중국이나 조선족에서 더 뚜렷하여 성에 따른 기질차이가 서로 다른 사회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성역할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 문화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고정관념에 따라 변화하여 보다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소학교 아동은 점차 성차를 크게 나타내는 데 반해 보다 서구화된 한국 사회에서 남녀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청소년기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복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아동은 그 기질적 특성이 한족 아동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조선족 아동과 화교 아동과는 유사한 기질적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한족 아동 또한 문화나 유전적인 공통성을 지닌 조선족 및 화교 아동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조선족 아동과 화교의 기질적 특성이 민족적 뿌리가 같은 한국 아동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배경이 동일한 한족 아동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것은 기질이 개인의 선천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능하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교문화에서 동일한 동양 문화권으로 간주되어왔던 조선족, 화교, 한족 그리고 한국 아동이 기질에서 차이가 나타난 점

으로 볼 때, 앞으로의 동양과 서양으로 분리하여 진행되어 온 비교문화 연구에 더 세부적인 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중국에서도 극히 소 집단인 연변에만 한정되어 있고, 또한 한국의 대상 아동도 한국의 전체 아동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동일한 한족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을 조사한 연구(Lai 등, 2000)에서도 지역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연변에 거주하는 한족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중국 한족 아동의 기질로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연변은 조선족 자치구이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교 아동의 중국 내 고향에 대한 정보획득에 실패하였는데, 한족의 기질적 특성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가정한다면,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부모의 중국내 고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결과를 중국과 한국의 전체 아동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적인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화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최근에야 비로소 시작된 관계로, 화교 특히 화교 아동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더욱 화교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동화정책은 화교사회 또한 한국인들을 폐쇄적으로 대하게 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화교에 대한 정보 수집을 어렵게 만들었다(이사라·박해원, 2006). 따라서 화교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 본 연구의 논의 자체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미흡하긴 하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화교 아동은 그 기질적 특성이 중국의 한족보다 오히려 한국아동과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이고, 한국어에도 매우 능숙하고 심리적으로

한국사회에 더 친숙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그들은 한국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성장한 이후에도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화교 정책은 이들의 욕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화교이외의 다른 외국인의 한국 정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별히 서구 사회의 소수집단과 달리 화교 아동의 경우, 주류사회와 분리되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 계승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선족 아동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조복희 · 이주연, 2006).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차후 거주외국인 정책에서 반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즉, 한국의 주류문화에 안정적인 동화가 최고의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들 고유의 문화를 소개하고 학습하는 것에도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현 화교 아동을 장래의 한국의 국민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현재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화교 학교에 정부의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일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조선족 아동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서도 조선족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조선족 아동은 한국보다는 중국을 자신의 모국이라고 생각하고 한국과의 거리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차후 통일한국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 등으로 볼 때, 이들 조선족 아동이 부모의 모국인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질 척도인 EATQ-R이 Eliss & Rothbart(199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현재까지 EATQ-R을 사용한 비교문화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와 판단은 어렵다. 하지만, EATQ-R을 사용하여 영재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분석한 최경아(2004)의 연구에서도 Eliss & Rothbart(1999)의 연구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볼 때, EATQ-R 자체가 동양 문화권의 아동의 기질 측정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향후 다른 기질 척도를 사용했을 경우, 본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EATQ-R을 비롯한 아동용 기질 검사척도에 대한 표준화 연구도 진행하여 보다 정확한 기질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문화적 편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뷰나 관찰 등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Hart, Yang, Nelson, Robinson, Olsen, Nelson, Porter, Jin, Olsen & Wu, 2000),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질에서의 차이만을 연구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선천적 성향으로 인식되어 온 기질과 환경과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게 위하여 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태학적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및 인과 관계에 대한 탐색도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흔히 동양권이라고 동일하게 간주되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같은 민족이지만 환경이 다른 조선족과 화교라는 네 집단의 아동이 기질에서 유사한 점도 있으나 차이 또한 있음을 실증적으로 고찰했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거주외국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문혁준(2000).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박민정(200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민정 · 박혜원(2006). 자아개념, 애착, 교사 및 또래 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조선족 및 한족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3), 79-89.

우심화(1999). 한국 화교 교육의 실태와 전망. 화교 네트워크와 차이나타운 세미나 발표논문. www.seoulchinatown.com

원영미 · 박혜원 · 이귀옥(2004). 유아의 기질과 가정 환경 및 유아의 부적응행동간의 관계 : 연변 조선족과 한국 유아의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311-333.

이사라 · 박혜원(2006). 화교, 중국조선족, 한국 청소년들의 자아개념발달에 관한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27(2), 181-194.

이재광(2004). 한국화교의 역사와 문화정체성 : 화교 교육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30, 571-591.

임계순(2003).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서울 : 현암사.

장수현(2001). 한국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국제인권법**, 4, 1-30.

조복희 · 이주연(2006). 중국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접변유형 및 학교적응 비교연구, **아동학회지**, 27(1), 95-111.

천희영(1993). 한국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 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천희영 · 정계숙 · 옥경희 · 황혜정 · 최성학(2006). 부모별거 초등학생의 별거 경험 및 양육요인에 따른 사회 · 정서적 적응력 연구 : 연변 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의 비교. **아동학회지**, 27(2), 101-126.

최경아(2004). 영재 아동의 기질 특성 분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연희(2001). 학령전 아동의 기질, 부모의 훈육방식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e, J. A. A., & Izard, C. E. (1999). Compliance, noncompliance strategies, and the correlates of compliance in 5-year-old Japanese and American children. *Social Development*, 8, 1-20.

Ahadi, S. A., Rothbart, M. K., & Ye, R. (1993). Children's temperament in the US and China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7, 359-377.

Borstein, M. H., Haynes, O. M., Azuma, H., Galperin, G. M., Maitel, S., Ogino, M., Painter, I., Pscual, L., Pecheux, M. G., Rahn, G., Toda, S., Venutri, P., Vyt, A., & Wright, B. (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 Argentina,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62-676.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 Press.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 Erlbaum.

Caudil, W., & Frost, L. (1972). A comparison of maternal care and infant behavior in Japanese-American, American, and Japanese families. In U. Bronfenbrenner (Ed.),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 Hinsdale, IL : Dryden Press.

Ellis, E., & Rothbart, M. (1999). *Revision of the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University of Oregon.

Gartstein, M., Slobodskaya, H., & Kinsht, I. (2003).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the first year of life :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ussi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4), 316-328.



- Hart, C. H., Yang, C. Nelson, L. J., Robinson, C. C., Olsen, R. A., Nelson, D. A., Porter, C. L., Jin, S., Olsen, S. F., & Wu, P. (2000).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and subtypes of socially withdrawn behaviour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4* (1), 73-81.
- Kagan, J., Kearsley, R. B., & Zelazo, P. R. (1978). *Infancy; Its place in human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Kohnstamm, G. A. (1989). Temperament in Childhood : Cross-cultural and sex differences.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Eds.), *Temperament in childhood*(483-508). Chichester, England : Wiley.
- Lai, A. C., Zhang, Z., & Wang, W. (2000).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in Hong Kong and Beijing Chinese families : A Compar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5*(1), 60-66.
- Park, M., & Choi, H. P. (2006).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among Korean-Chinese, Chinese and Korean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SRA 11th Biennial Meeting in San Francisco.
-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578.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1), 21-39.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 Fisher, P. (2001). Investigation of temperament at three to seven years :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 1394-1408.
- Russell, A., Hart, C. H., Robinson, C. C., & Olsen, S. F. (2003). Children's social and aggressive behavior with peers; a comparison of the US and Australia, and contribution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1), 74-86.
- Scott, A. M. (2003). Factors affecting goodness of fit in kindergarten classrooms. University of Florida. Doctoral Dissertation.
- Shaffer, D.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Belmont, CA. : Wadsworth.
- Simonds, M. P., & Simonds, J. F. (1982). Relationship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o preschool children's temperamen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2*, 19-31.
- Thomas, A., & Chess, S. (1980). *The dynamic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Mazel.
- Thomas, A., Chess, S., & Birch, H.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 New York Univ. Press.
- Windle, M., Iwawaki, S., & Lerner, R. M. (1988). Cross-cultural comparability of temperament among Japanese and American pre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3*, 547-567.

2006년 10월 30일 투고 : 2007년 1월 13일 채택